

[1]. 우리와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위한 말씀과 계명의 완성으로서의 주기도문

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(마태복음서)	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.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. (누가복음서)
--	---

[2]. 상응되는 구약의 계명(출애굽기 20:1-17, 신명기5:1-21)

- 1 부모를 공경하여라: 부모와 자녀 사이-존중하고 경외하는 대상으로서의 부모(생명)
- 2 살인하지 못한다: 사람과 사람 사이-고의적 살인 금지(고의범)
 - 과실범과 도피성 제도(신명기19장, 여호수아20장 등)
- 3 간음하지 못한다: 남자와 여자 사이-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

[3]. 사람은 ‘사람’을 용서하고, 하나님께서는 ‘죄’를 용서하신다

1. ‘죄’: 빛으로서의 죄, 약속을 어긴 죄(아담과 하와의 타락, 창세기2-3장)
 - 1) 능력이 부족한 경우 2) 탐욕으로 갇지 않는 경우
 - 3) 사람의 교만으로서의 죄: 하나님과 사람/사람과 사람/사람과 자연의 관계 파괴
 => 매일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
2. 용서의 조건?: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함 =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요청에 대한 진실성을 의미
3. 사랑으로서의 용서: 우리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용서의 선물만을 구하는 것은 이미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행위가 아니다
 -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의 관계 (마태6:14-15) (요한 20:23)
 - 자신은 용서받았으나 동료를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 (마태18:21-35)
4. 사람의 용서: 사람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‘사람’을 용서할 수 있음 (사회/개인적 차원, 윤리적 차원)
5. 하나님의 용서: ‘죄’의 용서 포함, 즉 ‘죄’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(종교적 차원)
6. 원수 갚는 일: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(히브리서10:30, 로마서12:19, 신명기32:35)
7. 가장 어려운 기도(Augustine):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고 이 기도를 드릴 경우, 우리는 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.